

석가모니부처님은 가비라성 밖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고, 마가다국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다. 그리고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셨으며, 구시라성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하셨다. 석가모니부처님이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위해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부처님처럼 못 생명의 젓줄이자 어머니인 생명의 강을 잘 모시겠다고 서원한 순례자들이 추위와 더위, 눈보라와 비바람을 묵묵히 견디고 맞아가며 생명의 강을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걷고 있다.

스님, 원불교 교무님, 목사님, 신부님 등 수행자와 성직자가 중심이 된 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유하백지화'가 5월 24일 백일 순례 회향 전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최근 중국 쓰촨성의 강진 발생으로 충칭직할시가 17개 댐 붕괴를 우려해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일본 교토동신에 따르면 두장엔시 북쪽에 위치한 지평푸댐과 고대 수리시설 가운데 하나인 위주이 제방에서 균열이 발견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댐이나 운하 등 인공적인 수로사업은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최소한 수년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이면서 산지



**불자 세상보기**

백 남 석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생명의 강 100일 순례를 회향하며**

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300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원의 수질오염, 하천생태계와 주변 환경의 파괴, 운하예정지 주변의 문화재 파괴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치밀한 조사와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만을 외치는 여론몰이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찰스 울프 미국 사회영향평가소장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주최한 '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토론회 발표를 통해 "대운하 사업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안조차 설정하

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울프 소장은 "사전환경성 평가와 전략환경평가와 같은 환경법령은 정말로 필요한 규제들"이라며 "대형 사업일수록 더욱 세심한 평가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운하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대운하만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오히려 다른 곳에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고 의문을 던진 바 있다.

지금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산 수

입최고기 문제인 듯하다. 풍우병의 공포를 안겨 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문제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수원의 수질오염을 비롯해 홍수 등 자연재해와 직결된 운하문제 역시 수질최고기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탈해 격정이다.

<지장경> '불신집회품'에 보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남자나 여자, 몸뚱이 아니라 산이나 숲이나 냇물이나 들과 강이나 못이나 샘이나 우물 등의 분신(分身)을 내어 중생을 이끄 되게 하고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법광경>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가운데 제20 경계(輕戒)는 '생명을 구제하라(不能救生)'는 것으로, "일체의 흠과 물은 다 나의 먼저 몸이요 일체의 바람과 불은 다 나의 본체이거니 산 것을 풀어서 살려주라"고 했다.

냇물이나 강은 중생을 이끄 되게 하고 해탈케 하는 부처님의 분신이며 흠과 물은 나의 먼저 몸임을 알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시는 도법 스님, 수경 스님, 연담 스님, 지관 스님께 깊은 존경의 예를 드린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의 백일순례가 5월 24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회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음의 사슬**

"사는 게 지겨워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보살님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한다. 환상 그분의 말씀을 듣다보니 내 가슴도 답답해졌다. 악연의 사슬에 묶여 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생각하다 보니 사슬이라는 말이 깊이 다가온다. 인연의 사슬에 갇힌 감옥 같은 삶 그러다가 실제 육신의 감옥인 교도소에 온 편지를 보게 되었다. 이 불자재소자는 부처님 법을 만난 후에 점점 마음의 사슬을 벗어내고 있는 중이었다. 몸은 자유로우나 마음의 감옥에 사는 보살님과, 몸은 매여있으나 마음은 자유인이 되려고 정진하고 있는 재소자의 삶이 대비되어 비쳐졌다. 다음은 재소자의 편지 중 일부이다.

**매마른 가슴에 범법률**

그리운 법사님께  
일요일 아침입니다. 머나먼 서울에 계신 미소가 아름다운 법사님께 편지를 들어 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도소에 체육 대회가 있었 습니다. 모처럼 손에서 책을 놓고 운동장에 나가 가 같은 팀을 응원하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요. 가슴 속에 쌓인 삼독의 분진들이 소리에 뿔뿔히 날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사님 말씀대로 다른 한 권은 신심이 둔탁하신 법우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록 작지만 알찬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보고 모두 발심하여 대비 서원을 성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것**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64 마음으로 지은 감옥**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이 하나도 없어야만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이나 아촉불의 12원, 보현보살의 10대원, 약사여래의 12원, 법장보살의 48원 등은 저희 불교를 알고 믿는 불자들이라면 스스로 갖는 약속 또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대비원을 세우셔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혹한 중생도 늘 밝은 원을 세워 다검생에 익혀 온 무명의 습기를 털어내고자 하지만 습의 힘이 너무 강하여 시시 때때로 이 육신이 이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길로 자꾸만 들어서려고 합니다. 제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밀바닥부터, 근본 뿌리부터 잘 살펴 자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업의 굴레를 만들어 고의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겠지요.

어느 책에선가 보살이 한번 성내는 마음을 극

복하려고 천 년을 지켜보았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 듯합니다. 하물며 저 같은 무명 중생이 야 말해 무엇하겠는지요. 다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원인을 주의 깊게 살펴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제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욱 발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노력한 땀의 대가를 소중히 여기고 저의 육신을 계로서 깨끗하게 하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올바른 사유하며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습으로 육신을 길들여 평생의 어두움을 벗어날 길이 없겠지요. 밝고 지혜로운 이는 깨끗한 습으로 자기 자신의 습을 잘 항복받아 청정 불국토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법사님! 차 한 잔이 곱깝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첫잔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플라스틱 컵이지

만 물을 따르는 소리와 함께 차의 향기를 맡으며 입안에서 차의 맛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찻잔의 운기를 손끝으로 모아 쥐어 함께 모여 앉은 동료 수행자들의 따뜻한 마음도 같이 마십니다. 법사님! 잘 만들어진 찻잎이 맑은 물을 만나 제 몸을 풀어내듯, 이 부족한 중생의 마음이 우리나라서 한 데 어울려 사는 지혜를 배우고 마음을 맑혀 많은 이들의 매마른 가슴을 법의 비로 촉촉이 적셔주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법사님께서도 가끔씩은 바쁘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깊은 향과 맛이 우리나라 차 한 잔의 시간을 갖는다면 마음이 더욱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리라 봅니다.

그럼 법사님, 푸른 하늘만큼이나 청명하고 좋은 날만 이어지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맺을까 합니다. 법체 평안하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불자 00 두 손 모아 올립니다.

**마음의 해방**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감옥은 바로 마음이다. 스스로 얽매는 마음이며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다. 이 밝은 초여름에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감옥을 지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다. 마음으로 지은 감옥은 오직 마음의 열쇠로 열고 나와야만 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마음의 법칙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해의 재난에 침묵하는 종단들**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 대재앙에 이어 중국 쓰촨성에서도 대지진이 발생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다. '자연의 역습'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재앙의 현장에서는 눈뜨고 보기 고통스러운 모습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매일 수많은 주검을 보며 느껴야 할 공포는 외신이 전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조계종과 천태종이 미얀마와 중국에 재난이 발생하자 애도문을 발표하고 성금 모금에 돌입했고 로터스 월드와 JTS 등의 단체들도 모금운동과 현지 구호활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같은 불교계의 움직임 속에서 조계종과 천태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단들은 침묵하고 있다. 현재 불교 종단협의회에는 30여 종단이 가입돼 있다. 그런데 두 종단이 해외의 참상을 애도하고 자비의 손길을 보내자고 호소하고 있고 나머지 종단은 침묵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종단이 애도문을 발표하고 성금 모금을 하기 어렵다면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잠잠하다. 이를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우리 불교계가 사회 현안을 불자의 눈으로 읽고 불자의 가슴으로 참여하는데 미숙하다는 지적은 어찌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무런 그렇다 해도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지구촌 생명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는 각 종단의 '인일주의' 내지는 '미흡한 사회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종단들도 규모와 상관없이 보다 넓은 안목을 갖춰야 한다.

**불서 읽기 지금이 '절호의 찬스'**

'불교'를 담은 책들이 부쩍 많이 출판되고 있다. 그간 경전의 내용을 풀어 쓴 책들과 스님들의 수행기 등이 불서의 주된 내용이었던 최근에 나오는 불서들은 헬빙과 응응불교 해와 고승들의 법문, 산사기행, 문학서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불교관련 서적이 많이 출판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불교전문출판사들이 활발하게 출판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간 일반서적들을 제작하던 출판사들도 불교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형출판사들이 불교관련 서적 기획에 경쟁을 하고 있고 필자와 소재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불교서적의 양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불교전문 출판사들이 바깥의 대형출판사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쟁은 패자를 낳기도 하지만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출판계의 앞날은 희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독서인구다. 불교서적이 많이 출판되는 이 시점에 불자들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불교책 내면 실패는 면한다'는 공식이 출판계에 정착될 수 있을 정도로 불자들이 책읽기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문서포교의 층도 두터워지고 불자들의 교양과 의식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사찰의 도서관 설치, 스님들의 적극적인 독서관장, 교육현장에서의 독서지도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행복한 5월, 부처님의 환한 지혜를 들려주세요**

취학전 아동, 저학년 추천

**1. 동양의 이슬우화, 백유경 시리즈**

[백유경시리즈 1] **강대나, 화가**  
최기민 글 · 박지매 그림 | 36쪽 | 9,0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 [백유경시리즈 2]  
최기민 글 · 혜경 그림 | 40쪽 | 9,000원

불교교리를 우화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처님의 즐거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학년 추천

**2. 아이들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우리에게오신 **부처님**  
이슬기 글 | 스튜디오엘 그림 | 172쪽 | 9,800원

**애들아, 절에 가자**  
홍주연 글 | 이경택 그림 | 160쪽 | 9,000원

절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는 보물이 가득한 곳!

(에스24)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인터파크)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교보문고)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우리나라 절의 아름다움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경찬 글·사진 292쪽 | 12,000원

전국 사찰의 유·무형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상세하게 소개한 책 -동일보

이번 책은 10년간 100여 사찰을 답사한 저자의 성과물이다. -조선일보

고찰은 문화재의 보물창고다. 궁금한 것도 한 둘이 아니다. 이 책을 보노라면 의문점이 저절로 풀리면서 불교가 가깝게 다가온다. -세계일보